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지도교수 하 봉 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박 정 추

박정추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2월 일

주 심 정치학박사 김진기



위 원 정치학박사 하봉규



위 원 정치학박사 이대희



목 차

목차	i
표 목차	iii
ABSTRACT	v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II.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5
1.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5
(1) 정치문화의 개념	5
(2) 정치사회화와 청소년기	6
2. 정치의식	8
(1) 정치의식의 개념	8
(2) 정치의식과 정치문화	11
3. 국내의 정치의식에 관한 선행 연구	13
(1) 정치의식 연구의 현황	13
(2) 청소년 정치의식 연구의 필요성	16
III.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실태분석	18

1. 설문조사의 목적과 문제	18
(1) 설문조사의 목적	18
(2) 설문조사의 문제	18
(3) 조사대상	19
2. 조사 결과의 분석(부산지역 고등학생의 정치의식).....	20
(1) 민주주의 의식	20
(2) 북한관	37
(3) 통일관	46
(4) 안보관	55
 IV. 요약 및 결론	 62
 참고 문헌	 67
부록 : 설문지	70

< 표 목 차 >

< 표 1 > 개인의 정치의식	10
< 표 2 > 민주주의 실현의지 빈도분석	20
< 표 3 > 민주주의 실현의지 교차분석	21
< 표 4 > 정치 권위의식 빈도분석	22
< 표 5 > 정치 권위의식 교차분석	23
< 표 6 > 선거참여와 정치발전 빈도분석	24
< 표 7 > 선거참여와 정치발전 교차분석	25
< 표 8 > 정치참여 빈도분석	26
< 표 9 > 정치참여 교차분석	27
< 표 10 > 타협과 설득의식 빈도분석	28
< 표 11 > 타협과 설득의식 교차분석	29
< 표 12 > 다수결 원칙에 대한 의식 빈도분석	30
< 표 13 > 다수결 원칙에 대한 의식 교차분석	31
< 표 14 > 시위문화 빈도분석	32
< 표 15 > 시위문화	33
< 표 16 > 여성의 정치참여 빈도분석	34
< 표 17 > 여성의 정치참여 교차분석	35
< 표 18 > 북한사람들의 가치관 빈도분석	37
< 표 19 > 북한사람들의 가치관 교차분석	38
< 표 20 > 북한사람들의 생활방식 빈도분석	39

< 표 21 > 북한사람들의 생활방식 교차분석.....	40
< 표 22 > 북한사람들의 언어생활 빈도분석.....	41
< 표 23 > 북한사람들의 언어생활 교차분석.....	42
< 표 24 > 대북 식량지원 빈도분석.....	43
< 표 25 > 대북 식량지원 교차분석.....	44
< 표 26 > 통일의 이유 빈도분석.....	46
< 표 27 > 통일의 이유 교차분석.....	47
< 표 28 > 통일의지 빈도분석	48
< 표 29 > 통일의지 교차분석	49
< 표 30 > 통일시기 빈도분석	50
< 표 31 > 통일시기 교차분석	51
< 표 32 > 통일후의 어려움 빈도분석.....	52
< 표 33 > 통일후의 어려움 교차분석.....	53
< 표 34 > 미군철수 빈도분석	55
< 표 35 > 미군철수 교차분석	56
< 표 36 > 미군철수와 안보 빈도분석.....	57
< 표 37 > 미군철수와 안보 교차분석.....	58
< 표 38 > 국가보안법 빈도분석	59
< 표 39 > 국가보안법 교차분석	60

The Survey and Research on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Jeong-Chu Par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aim of this survey is to research and analyze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In the 21st century, the age of change and uncertainty, this study is also able to give a critical insight to the students who will lead the era of the reunified Korean peninsula. The critical insight enables students to face up to the reality of North Korean society and to keep objective viewpoints on the reunification. Standing on the firm ground of Democracy, they can cultivate their willingness of reunification on the basis of peaceful mind.

We conducted the questionnaire survey of 588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The questionnaires consist of 23 questions of four topics: Consciousness of Democracy,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View of Reun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Consciousness.

The summaries of the result analysis are followings:

1. Consciousness of Democracy

The students show strong will of blooming the Democracy but about 40% of them stand against authoritarianism. Different from university students, they admit the social diversity, in other words, they prefer compromise and persuasion to compulsion. In

addition, they respect the opinion of the majority and regard the demonstration as declaring one's intentions. On top of that, they have positive attitude on the women's engaging in politics. Though they have a great interest in politics, they don't want to take part in political activities.

2. Understanding North Korea

They think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have quite different political systems, and they agree a conditional and restricted support for the north.

3. View of Reunification

They have preference for gradual unity rather than for radical one. Most of them think of 14-16 years or 20 years after as the best time of unity. Despite the recent rapid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due to the summit conference, their willingness to unity is still low.

4. National Security Consciousness.

Relevant to the problem of national security, basically they agree on the withdrawal of U.S armed forces in Korea, not immediately but gradually. Some of them think the withdrawal of U.S troops may have an influence on the national security. Most of them int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should be abolished or partially amended and modified.

1.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후 극심한 이데올로기의 혼란을 거치고 서구의 민주주의를 수용하였다. 정부 수립 후 헌법 제정을 통해 도입한 민주 정치 제도는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의 정치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민주적 정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문화는 이 제도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권위주의적 토양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디게 성장한 데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부조화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의 발전은 민주적 정치제도의 확립과 이 제도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조화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식의 민주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참여,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20세기 말에는 동서냉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소련 및 동유럽이 붕괴되었고 독일이 통일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동서냉전의 시대가 가고 국가와 민족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실질적인 분단국가로 남게 되었다. 남북한 모두는 세계질서의 변화에 발맞추어 이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여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

화공존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즉 남북한 모두에게 있어 대내외적으로 남북통일이 중요한 현안과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인 남북통일을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효율적이고 합리적 방식에 의해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세대는 이전의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사회적 경험과 정서를 가진 세대들이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 상당한 적응력을 보이는 반면 기성 세대들에게는 현 시대의 환경변화가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현재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세대간 갈등으로 비추어지는 시각은 이러한 점에서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나아가서 냉전 이데올로기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서로 화합하는 작업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행 과제라 할 수 있다.

21세기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급속한 변화와 남북정상회담 이후 햇볕정책의 결과로 대립과 갈등의 남북 관계를 협력 및 평화 공존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또한 청소년들은 역사의 매개자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북한관, 통일관, 안보관 등은 한국 정치발전의 전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향후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정치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시기인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의식의 내면화 정도를 평가하고 나아가 건전한 민주주의 의식의 정립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해보려고 한다. 본 조사 연구에서는 통일시대를 주도할 고등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 북한관, 통일관, 안보에 대한 의식을 조사 연구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를 위해 우리는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특징과 정치의식 및 정치문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정치의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정치와 정치의식의 개념 그리고 청소년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의식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을 문헌 연구를 통해 알아보겠다. 또한 알몬드·버바의 정치문화 이론을 살펴보고, 정치의식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자 하며, 정치사회화의 의의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응답자 개인신상을 포함한 23개의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문항들은 배한동(2001년)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 조사”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85집) 설문지 내용 중 2개의 카테고리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배한동의 설문지 내용을 인용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2000년 6월 초순부터 7월말까지 서울·경기·대구·경북·광주·전남 지역의 4년제 대학생 1,580명을 표집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대학생들의 정치의식 일반에 관한 평가, 정부형태 및 정치과정에 관한 평가, 김대중 정부의 정책수행능력 평가, 통일과 안보의식 평가, 민주시민의식 평가라는 5개의 카테고리에 총 70여개 문항이 설문에 사용되었다.

배한동(2001년)의 연구가 광범위한 범위에 걸친 설문 문항의 구성과 전국에 걸친 표본의 수집으로 완성도가 높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상당히 부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 안보의식 평

가, 민주시민의식 평가라는 2개의 카테고리를 주로 참고하였다.

II.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1.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1) 정치문화의 개념

정치문화의 개념은 사회 일반문화의 하위문화로서 정치적 부문에 관련된 문화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정치문화의 개념에 대하여 유명한 『시민 문화』의 저자인 알몬드는 정치문화를 정치체제와 그의 여러 부문에 대한 태도와 정치체제에 있어서 자아의 역할에 대한 태도로 구성된 것이라 하였으며¹⁾ 그의 『비교정치론』에서는 정치문화란 정치체제 구성원 개개인이 정치체제에 대하여 갖는 태도 및 정향성의 유형이라고 하였다.²⁾ 국내 여러 학자들은 정치문화를 ‘민족사회의 역사적 전통과 명맥, 정치적 상징, 국민의 신념과 정열 또는 집단적 이성, 국민의 가치관, 지도자들의 지도 양식과 행위규범을 특징지우는 것’³⁾, ‘그 사회 구성원이 갖는 정치적 경향 및 성향의 총합’⁴⁾, ‘유형화된 정치적 가치체제로서 정치적 관념, 지배규범 및 정치

1)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Boston: Little, Brown & Co., 1966.

2)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The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 Co., 1966.

3) 김운태, 『정치학원론』, 서울: 박영사, 1998, 251쪽.

4) 백완기, “정치사회화와 정치문화,” 김계수 외 편, 『현대정치과정론』, 서울: 법문사, 1985, 92쪽.

적 상징 등의 요소로 구성되며 정치제도의 형성 또는 개개인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⁵⁾

한국의 『정치학대사전』에 소개된 정치문화의 개념은 '정치문화란 말이 내포하는 뜻은 정치전통·정치풍토·정치의식·정치적 신조·가치관·정치적 감정과 같은 것'이라 한다.⁶⁾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정치 문화는 민족사회의 역사적 전통과 명맥, 정치이념과 규범, 정치기구와 집단, 정치적 정열과 신념, 정치적 상징과 가치관, 정치지도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규범 등으로 특징지어 진다.

(2) 정치사회화와 청소년기

정치의식은 바로 정치사회화의 소산물이므로, 정치의식의 이해를 위해서도 정치사회화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⁷⁾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라는 개념은 정치와 사회화의 복합어로 개인이 그 사회의 정치문화를 학습하여 가는 과정을 말한다. 즉 정치사회화는 사회의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하여 개인의 정치에 관련 있는 태도적 성향과 행동적 유형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한 매개체 가운데에는 가족, 동년배집단, 학교, 성인단체, 통신매체 등이 포함된다. 정치사회화는 정치 문화가 변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학습을 통하여 이를 체득함으로써 그 자신이 정치문화를 갖게 되고 정치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사춘기와 청년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발달 단계에 따라 신체적 발달시기, 인지적 발달시기, 자아정체성

5) 안병만, 『한국정치론』, 서울: 다산출판사, 1985, 58쪽.

6) 정인홍 외, 『정치학대사전』, 서울: 박영사, 1979, 1333쪽.

7) 사회화는 한 개인이 사회학적 의미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자기가 사는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배우고 행동성향을 익히는 과정이다.

형성시기로 나눌 수 있다.

① 신체적 발달시기: Rousseau가 청소년기를 제 2 탄생기라 한 바와 같이 이때는 자의식이 눈뜨는 시기이다. 성적·신체적 발달은 성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

② 인지적 발달시기: 이 시기는 청소년의 심리 특성 중 감정의 양면성이 있다. 즉,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 욕구 사이의 모순된 감정을 표출한다.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독립, 순종과 반항, 안일과 개척, 쾌활과 우울, 현실타협과 이상고수, 자존과 자기비하의 감정 사이를 왕래한다.

③ 자아정체성 형성시기: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이어서 다양한 태도, 이중적인 가치, 이상과 생활방식 속에서 계속적인 충동을 경험하며 동료 집단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접촉의 미숙을 경험한다. 이 시기를 주변인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좌절과 불만이 따른다. 이러한 주변인의 입장은 무책임한 행동을 수반하기도 하며 스트레스와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다. 정체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있는 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이에 대처할 자신의 잠재력에 자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자의식의 형성발전과 함께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 간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기로부터 성인에 이르는 시기의 경험은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청년기의 정치적 정향의 변화는 인지적 패턴의 변화, 정치체계가 권위체라고 하는 생각의 감소,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능력의 발달로 나타난다.⁸⁾ 청소년기에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시켜 객관화하여 보고 자기가치를 생존의 의미를 인식하고 이상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내면적 동요가 있고 객관화된 그러나 주관적 감정을 벗어나지 못한 자기존재

8) 김명기·김운태 공저 『정치학개론』,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0, 67쪽.

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자존감, 자기과시 또는 자기비하의 교차심리가 따른다. 차차 성인기로 이행되면서 환경과 조화된 독립된 자기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⁹⁾

2. 정치의식

(1) 정치의식의 개념

정치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권력의 조작에 의하거나,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동의를 매개로 하는 인간행동의 조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정치가 인간 행동의 조직화인 한에 있어서는 정치는 개인의 정치의식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¹⁰⁾

그러면 정치의식이란 무엇인가? 정치의식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양하여 유사한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다. 정치의식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정치문화, 정치성향, 정치적 신념, 정치적 태도 등 유사한 개념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¹¹⁾

정치학대사전에는 ‘정치적 사상과 정치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인식, 태도, 평가의 총칭’이며 정치적 행동의 선택으로 인도하는 의견, 판단, 인상, 감각 등의 정신작용으로 정치의식을 규정하고 있으며,¹²⁾ 이에

9) 이현주,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3-19쪽.

10) 이극찬, 『정치학』, 서울: 법문사, 1999, 287쪽.

11) 박용현 외, “현대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상과 윤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307쪽.

대한 학자들의 정의도 대개 비슷하다. 정득규는 ‘정치일반 또는 특정한 정치문제에 대하여 갖는 정치행동의 先有정향으로서의 정치적 사고와 그것에 연유하는 행동양식인 태도’를¹³⁾ 정치의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운태는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사고방식 및 행동양식’¹⁴⁾이라고 하고 이극찬은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적 사상과 특정한 정치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인식·평가·태도를 총칭한다’¹⁵⁾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이철형은 사람들의 정치적 행동을 결정케 하는 정신작용을 정치의식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치적 사상과 특정한 정치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인식·평가·태도를 정치의식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의 정치적 행동에 관한 선택에는 그와 같은 선택으로 인도하는 의견과 판단과 인상과 감각 등이 작용한다고 하였다.¹⁶⁾

앞에 제시한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개념을 종합해보면 정치의식이란 정치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의식의 총칭이다. 즉 정치의식이란 정치 혹은 정치적으로 관련된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사고방식 및 태도·행동양식 등을 널리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정치의식을 좁은 의미로 보아 정치적 의견이나 이론, 이데올로기의 측면만을 중시하는 경우와, 이를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자아의 자율성, 가치의식 및 심층에 있는 무의식의 측면까지도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들 양자를 결합하여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한에는 욕구 내지는 심리 메커니즘을, 상한에는 개인의 의견 내지 이론·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중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⁷⁾

12) 정인홍 외, 앞의 책, 1348~1350쪽.

13) 정득규, 『정치의식과 투표행위』, 서울: 박영사, 1975,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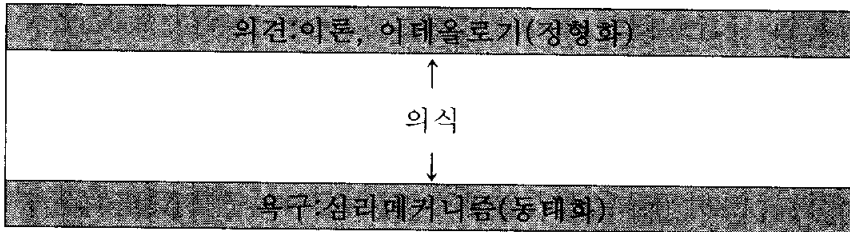
14) 김운태, 앞의 책, 235-236쪽.

15) 이극찬, 앞의 책, 287-288쪽.

16) 이철형, 『최신 정치학원론』, 서울: 법지사, 1996, 256쪽.

17) 松下圭一, 『現代政治學』,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2, 134-135쪽.

< 표 1 > 개인의 정치의식



그런데 인간의 정치의식의 형성은 인간이 일정한 정치제도와 권력적 통제에 의해서 자신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때 형성된다. 즉 그것은 정치제도와 권력적 통제의 선악이 곧 인간생활의 행·불행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정치적 규제에 관해서 가치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정치적 규제의 본질상, 그것이 사회성원들의 생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이해와 조건 등에 비슷하게 관계되기 때문이다.¹⁸⁾

정치의식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집단과 계급과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성립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연령층과 학력과 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범위 내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정치의식이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

정치의식은 정치문화보다 넓게 개인의 태도나 신조를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정치체계, 투입과정, 산출과정, 정치주체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떠한 지식, 감정과 가치판단을 표시하고 있는가를 정치의식이라 하고 이를 통하여 정치문화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것이다.¹⁹⁾

18) 이극찬, 앞의 책, 288쪽.

19) 안성호, 『신 정치학 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2, 188쪽.

(2) 정치의식과 정치문화

정치의식이란 정치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의식의 총칭이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태도나 신조를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정치의식은 정치문화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집단과 계급 및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성립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문화를 알몬드는 정치정향(political orientation)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향(定向)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일정한 행동성향으로 정치정향이라 함은 정치적 자극에 대해 정치상황 속에서 일정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통, 역사적 경험, 동기, 규범, 감정, 상징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²⁰⁾ 일정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정치정향의 요소가 바로 정치문화이다. 이러한 정치정향은 ① 인지적 정향, ② 감정적 정향, ③ 평가적 정향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인지적 정향은 경험적 신념으로 사람들이 정치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감정적 정향은 감지된 정치적 대상에 대한 호의의 감정적 반응으로 나타나며, 평가적 정향은 가치의 선호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추구되어야 하는 공공의 목표와 정부의 행동에 의하여 최대화되어야 하는 개인적인 이득에 대한 신념이다.

이리하여 알몬드와 버바는 여기에서 향리형(parochial), 신민형(subject), 참여형(participant)의 세 가지 정치문화 유형을 도출하였다.²¹⁾

첫째는 향리형 정치문화로서, 이 유형은 원시사회나 봉건사회 등 대부분의 전통사회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이 사회의 주민들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에 대해서만 관심과 지식을 가질 뿐 일정한 지역을 초월

20) Almond and Verba, 앞의 책, 15쪽.

21) 위의 책, 17쪽

한 국가나 민족 또는 정치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의식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 유형의 정치문화는 비교적 전문화된 정치적 역할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의 정향과 종교 등의 사회적 정향의 구별이 분명치 않다.

둘째, 신민형 정치문화로서, 이 유형은 전근대적 정치의식, 권위주의적 정치의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신생국가나 민주화되기 이전의 동유럽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정치문화는 투입구조가 분화되지 않는 사회의 전형으로 시민들은 정치체계의 산출기능에 대해서만 정치적 정향을 가지고 투입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치적 정향을 갖지 못하며,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인 흐름의 관계인 것이 특징이다.

셋째 유형인 참여형 정치문화는 사회구성원이 정치체계의 투입-산출 부문, 즉 정치적·행정적 구조와 과정에 대하여 뚜렷한 정향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체계에 있어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이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주민들이 정치체계가 그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정책의 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의사와 이익이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가를 알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치문화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현실의 정치문화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세 가지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유형이 다른 유형의 정치문화보다 지배적인 경우가 나타난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에 따라, 그리고 세대의 구성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3. 국내의 정치의식에 관한 선행 연구

(1) 정치의식 연구의 현황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정치의식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규택(1969)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국내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지식을 지니고 있으나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나타났고,²²⁾ 박용현(1976)은 정치의식은 정치인, 정치사상, 정치문제에 대하여 인지적, 정의적, 평가적 성향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고,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인식대상으로서의 민족, 국가, 정치, 사회, 통일, 안보의식의 영역을 포함시켰다.²³⁾

이종렬(1977)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높으나, 국가의 일을 수행하여 나가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많고, 국회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나 경찰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⁴⁾

그리고 정세구(1981)의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시민의무감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일반적으로 나타내었으나 정치 신뢰와 효능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치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⁵⁾

한편, 고영복(1982)은 한국학생들의 학교생활, 사회관, 민족주의관, 정치

22) 김규택, “정부에 대한 어린이들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3집, 한국정치학회, 1969.

23) 박용현, 『사회적 행동과 학습』, 서울: 교육출판사, 1976.

24) 이종렬,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25) 정세구, “정치사회화 과정의 분석: 한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12집, 1981.

관 및 이데올로기관을 조사하여 정치의식구조를 파악하려고 하였다.²⁶⁾

이봉렬(1988)은 서울 시내에 근무하는 548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정치 발전, 정치 사회 문제의 관심도, 정부의 영향력 및 신뢰도, 교원의 민주적 자세, 사회적 배경, 정치의식 수준, 정치 현실 인식 및 정치 참여, 매스컴 보도의 신뢰도 등에 대한 태도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²⁷⁾

또한 서위태(1989)는 포항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인식, 그리고 정당에 대한 인식과 현 정치에 대한 평가와 기대를 조사하였다. 남녀 학생 모두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를 '권력·부패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학생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정당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반응이 전체의 49%에 해당되었다.²⁸⁾

강병준(1990)은 정치의식에 관한 개념 모형을 설정해서 한국의 정치, 경제, 통일문제, 공산주의 및 국민윤리 차원으로 나누고, 제주도 국민윤리 교사 158명을 대상으로 정치의식을 조사했다. 강병준은 그 동안 국내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정치의식 조사연구는 많이 있으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²⁹⁾

최근, 박종남(1997)은 국가의식, 애향의식, 국가발전에 대한 참여의식, 정치에의 참여의식, 학생회 자치활동 참여의식, 준법의식 및 질서의식, 정부에 대한 신뢰, 정치인에 대한 관용의식, 정치문화에 대한 인지, 소수 보호에 대한 의식, 통일에 대한 의식 등으로 정치의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신도시와 신도시 부근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신

26) 고영복,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사상,” 『현대사회』, 봄호, 1982.

27) 이봉렬, “초등교사의 정치 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28) 서위태, “포항지역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포항연구』, 1989.

29) 강병준, “제주도 국민 윤리 교사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도시 학생들은 진보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인데 비해 인근 농촌학생들은 보수적이고 공동체적 이익 추구의 성향을 나타내었다. 정치의식은 각 영역 별로 기대수준에 못 미쳤으나 비교적 건전한 방향으로 정치적인 정향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태도적 측면, 평소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평가적인 입장은 건전하였다.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 의식도 변모해 감을 알 수 있었다.³⁰⁾

배한동(2001)은 대학생들의 정치의식 일반에 관한 평가, 정부형태 및 정치과정에 관한 평가, 김대중 정부의 정책수행능력 평가, 통일과 안보의식 평가, 민주시민의식 평가라는 5개의 카테고리로서 서울·경기, 광주·전남,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정치의식을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정치의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국의 정치가 정권교체 등 민주화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후진적인 요소가 곳곳에 남아있다. 즉 대학생들의 한국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과 냉소주의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이나 저조한 투표참여율,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의 정치성향,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실현의지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타협의식과 설득의식, 준법이나 질서에 대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청년세대들의 비판적인 의식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의식구조를 반영한 것이라라고 밝히고 있다.³¹⁾

30) 박종남,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에 관한 조사연구-분당 신도시지역과 인근 농촌의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31) 배한동,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서울, 경기, 광주·전남,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정치의식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85집, 집문당, 2001.

(2) 청소년 정치의식 연구의 필요성

경제발전과 같은 사회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개인주의나 도덕성의 결여와 같은 심리적 영향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희박하게 하고 그들의 행동에서 ‘나’만을 위하는 경향이 짙어지게 하고 있다³²⁾.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들의 정치의식, 신념, 태도, 행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미래에 잘못된 사회 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기는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역사의 매개자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사회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고 유능한 민주시민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치연구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선진국일수록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일찍부터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Almond와 Verba(1963)는 그들의 저서 『시민문화』(The Civil Culture)에서 정치사회화의 내용을 정치적 정향과 정치적 대상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고, Easton과 Dennis(1969)는 정치적 정향을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그리고 평가적 측면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³³⁾.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1980년 후반에나 비로소 정치의식을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었고 그 조사들도 정치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32) 한완상, 『한국현실과 한국사회학』, 서울: 범우사, 1992, 34~37쪽.

33) 김광웅·방은령, 『한국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형성요인』, 서울: 집문당, 2001, 16쪽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된 관심대상이 성인이었고, 정치사회화의 연구도 정의적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³⁴⁾.

어린 시절에 형성된 정치의식과 국가의식은 성인이 되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교육현장에서 청소년 시절의 정치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등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시절의 정치의식에 관한 실태 조사나 청소년들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민주시민 정신의 올바른 지도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을 조사·연구해 보고자 한다.

34) 김광웅·방은령, 앞의 책, 17쪽

Ⅲ.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실태분석

1. 설문조사의 목적과 문제

(1) 설문조사의 목적

이 장에서는 설문지 배포·수거방식을 통해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고, 이후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 북한관, 통일관, 안보관을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에 따른 차이를 교차분석하고자 한다.

(2) 설문조사의 문제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정치의식 분석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

둘째,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북한관

셋째,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통일관

넷째,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안보관

이 연구 문제를 수행하기 위한 설문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 조사를 위해 민주주의 실현 의지, 개인주의 의식, 선거 참여와 정치 발전, 정치 참여, 타협과 설득의식, 다수결 원칙에 대한 의식, 시위 문화,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주제의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북한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 북한사람들의 생활방식, 북한사람들의 언어 생활,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의견이라는 주제의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통일관을 알아보기 위해 통일의 이유, 통일 의지, 통일의 시기, 통일후의 어려움에 관한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넷째,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안보관을 알아보기 위해 주한 미군 철수, 미군 철수와 안보, 국가 보안법에 대한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3)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조사지역을 부산광역시로 국한했으며 임의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하여 실시했다. 2003년 3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2학년, 3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학생 588명을 표집하여 설문지 배포수거방식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의 표집은 2003년 4월 현재 부산광역시의 6개 구에서 한 학교씩을 선택하여 고등학교 1학년 195명, 2학년 198명, 3학년 195명, 총 58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남학생은 303명이었으며 여학생은 195명이었다. 응답자 가정의 경제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33명(5.6%)의 학생이 '상', 246명(41.8%)의 학생이 '중상', 252명(42.9%)의 학생이 '중하', '하'라고 응답한 학생은 57명(9.7%)이

었다. 응답자의 종교는 ‘기독교’가 114명(19.4%), ‘천주교’가 72명(12.2%), ‘불교’가 159명(27%), ‘기타 종교’가 9명(1.5%)이었으며 ‘없음’이라고 답한 학생은 234명(39.8%)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V 10.1)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설문지 문항을 성별, 학년, 경제 수준, 종교와 교차분석 하였으며, chi-sq분석으로 자료의 통계적 유의성을 측정하였다.

2. 조사결과의 분석(부산지역 고등학생의 정치의식)

(1) 민주주의 의식

① 민주주의 실현의지

< 표 2 > 민주주의 실현의지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민주주의 실현 의지	①전적으로 동의함 (24명, 4.1%) ②대체로 동의함 (126명, 21.4%)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282명, 48%)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156명, 26.5%)

민주주의 실현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잘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라는 설문에 24명(4.1%)이 ‘전적으로 동의함’으로, 126명(21.4%)이 ‘대체로 동의함’이라고 답했다. 282명(48%)이 ‘별로 동의하지 않음’으로 156명(26.5%)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분석할 때 438명(74.5%)의 학생이 경제 문제와는 무관하게 민주주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 > 민주주의 실현의지 교차분석							
대상	구분	전적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계	
성별	남학생	24 (7.9%)	90 (29.7%)	132 (43.6%)	57 (18.8%)	303 (100%)	chi-sq= 59.104 유의확률: 0.001
	여학생		36 (12.6%)	150 (52.7%)	99 (34.7%)	285 (100%)	
학년	1학년	15 (7.7%)	27 (13.8%)	90 (46.2%)	63 (32.3%)	195 (100%)	chi-sq= 28.381 유의확률: 0.001
	2학년	3 (1.6%)	54 (27.3%)	105 (53.0%)	36 (18.2%)	198 (100%)	
	3학년	6 (3.1%)	45 (23.1%)	87 (44.6%)	57 (29.2%)	195 (100%)	
경제 수준	상	6 (18.2%)	9 (27.3%)	9 (27.3%)	9 (27.3%)	33 (100%)	chi-sq= 55.206 유의확률: 0.001
	중상	12 (4.9%)	51 (20.7%)	114 (46.3%)	69 (28.1%)	246 (100%)	
	중하	3 (0.1%)	54 (21.5%)	126 (50%)	69 (27.4%)	252 (100%)	
	하	3 (5.3%)	12 (21.1%)	33 (57.9%)	9 (15.8%)	57 (100%)	
종교	기독교		24 (21.1%)	54 (47.4%)	36 (31.6%)	114 (100%)	chi-sq= 51.914 유의확률: 0.001
	천주교		6 (8.3%)	42 (58.3%)	24 (33.4%)	72 (100%)	
	불교	12 (7.5%)	21 (13.2%)	75 (47.2%)	51 (32.1%)	159 (100%)	
	기타			6 (66.7%)	3 (33.3%)	9 (100%)	
	무교	12 (5.1%)	75 (32.1%)	105 (44.9%)	42 (17.9%)	234 (100%)	

민주주의 실현의지에 대한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네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어떻게 해서든 잘살 수 있도록 해 주면 되

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라는 질문에 우선 성별에 따르면 남학생 62.4%, 여학생 87.4%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의 민주주의 실현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78.5%, 2학년 71.2%, 3학년 73.8%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학년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경제 수준별로는 상위계층의 54.6%만 동의하지 않았으며 중간 이하의 계층에서는 70%이상의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아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민주주의 실현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모든 종교에 걸쳐 60%이상의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개인주의 의식

< 표 4 > 개인주의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개인주의 의식	①전적으로 동의함 (30명, 5.1%) ②대체로 동의함 (210명, 35.7%)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243명, 41.3%)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105명, 17.9%)

개인주의의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발전에 꼭 필요하다면 개인의 자유가 다소 희생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라는 설문에 30명(5.1%)이 ‘전적으로 동의함’으로, 210명(35.7%)이 ‘대체로 동의함’, 243명(41.3%)이 ‘별로 동의하지 않음’, 156명(26.5%)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였다. 240명(40.8%)의 학생이 국가 발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리고 348명(59.2%)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집단주의 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된

다.

< 표 5 > 개인주의 의식 교차분석							
대상	구분	전적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 지 않음	계	
성별	남학생	15 (4.6%)	93 (30.7%)	117 (38.6%)	78 (25.7%)	303 (100%)	chi-sq= 27.322 유의확률: 0.001
	여학생	15 (5.3%)	117 (41.1%)	126 (44.2%)	27 (9.5%)	285 (100%)	
학년	1학년	12 (6.2%)	81 (41.5%)	69 (35.4%)	33 (16.9%)	195 (100%)	chi-sq= 14.513 유의확률: 0.024
	2학년	15 (7.6%)	60 (30.3%)	90 (45.5%)	33 (16.7%)	198 (100%)	
	3학년	3 (1.5%)	69 (35.4%)	84 (43.1%)	39 (20.2%)	195 (100%)	
경제 수준	상	3 (9.1%)	12 (36.4%)	15 (45.5%)	3 (9.1%)	33 (100%)	chi-sq= 26.483 유의확률: 0.002
	중상	15 (6.1%)	105 (42.7%)	81 (32.9%)	45 (18.3%)	246 (100%)	
	중하	9 (3.6%)	78 (31.0%)	126 (50.0%)	39 (15.5%)	252 (100%)	
	하	3 (5.3%)	15 (26.3%)	21 (36.8%)	18 (31.6%)	57 (100%)	
종교	기독교	3 (2.6%)	42 (36.8%)	51 (44.7%)	18 (15.8%)	114 (100%)	chi-sq= 41.337 유의확률: 0.001
	천주교	3 (4.2%)	30 (41.7%)	24 (33.3%)	15 (20.8%)	72 (100%)	
	불교	18 (11.3%)	63 (39.6%)	57 (35.9%)	21 (13.2%)	159 (100%)	
	기타			3 (33.3%)	6 (66.7%)	9 (100%)	
	무교	6 (2.6%)	75 (32.1%)	108 (46.2%)	45 (19.2%)	234 (100%)	

개인주의 의식에 대한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네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

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국가발전에 꼭 필요하다면 개인의 자유가 다소 희생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라는 질문에 남학생 64.3%, 여학생 5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개인주의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52.3%, 2학년 62.2%, 3학년 63.3%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개인주의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수준별로는 상위계층의 54.6%만 동의하지 않았으며 중상계층은 51.2% 중하계층은 65.5% 하위계층은 68.4%가 동의하지 않아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개인주의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기독교는 60.5%, 천주교는 54.1%, 불교는 49.1%, 무교는 65.4%로 나타나 불교를 제외한 기독교, 천주교, 무교의 경우 개인주의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선거 참여와 정치 발전

< 표 6 > 선거참여와 정치발전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선거 참여와 정치 발전	①전적으로 동의함 (222명, 37.8%) ②대체로 동의함 (234명, 39.8%)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117명, 19.9%)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 (15명, 2.6%)

정치적 효능감을 측정해 보기 위해 “성인이 된 뒤 각종 공직선거에서 내가 던진 한 표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라는 설문에 222명(37.8%)이 ‘전적으로 동의함’, 234명(39.8%)이 ‘대체로 동의함’, 117명(19.9%)이 ‘별로 동의하지 않음’, 15명(2.6%)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분석할 때 436명(77.6%)의 학생이 투표가 정치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 표 7 > 선거참여와 정치발전 교차분석							
대상	구분	전적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계	
성별	남학생	111 (36.6%)	102 (33.7%)	75 (24.7%)	15 (5.0%)	303 (100%)	chi-sq= 27.629 유의확률: 0.001
	여학생	111 (38.9%)	132 (46.3%)	42 (14.7%)		285 (100%)	
학년	1학년	81 (41.5%)	69 (35.4%)	42 (21.5%)	3 (1.5%)	195 (100%)	chi-sq= 9.768 유의확률: 0.135
	2학년	66 (33.3%)	90 (45.5%)	39 (19.7%)	3 (1.5%)	198 (100%)	
	3학년	75 (38.5%)	75 (38.5%)	36 (18.5%)	9 (4.6%)	195 (100%)	
경제 수준	상	12 (36.4%)	9 (27.3%)	12 (36.4%)		33 (100%)	chi-sq= 46.160 유의확률: 0.001
	중상	117 (47.6%)	90 (36.6%)	39 (15.9%)		246 (100%)	
	중하	72 (28.6%)	114 (45.2%)	57 (22.6%)	9 (3.6%)	252 (100%)	
	하	21 (36.8%)	21 (36.8%)	9 (15.8%)	6 (10.5%)	57 (100%)	
종교	기독교	48 (42.1%)	54 (47.4%)	9 (7.9%)	3 (2.6%)	114 (100%)	chi-sq= 76.426 유의확률: 0.001
	천주교	24 (33.3%)	21 (29.2%)	27 (23.7%)		72 (100%)	
	불교	66 (41.5%)	54 (34.0%)	39 (24.5%)		159 (100%)	
	기타	3 (33.3%)		3 (33.3%)	3 (33.3%)	9 (100%)	
	무교	81 (34.6%)	105 (44.9%)	39 (16.7%)	9 (3.9%)	234 (100%)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성별, 경제수준, 종교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학년의 교차분석 결과

만 무의미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성인이 된 뒤 각종 공직선거에서 내가 던진 한 표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라는 질문에 남학생 29.7%, 여학생 14.7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남,여학생 모두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수준별로는 상위계층의 36.4%가 동의하지 않아 중간 이하의 계층보다 정치적 효능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모든 종교에 걸쳐 정치적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④ 정치 참여

< 표 8 > 정치참여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정치 참여	①전적으로 동의함 (60명, 10.2%) ②대체로 동의함 (126명, 21.4%)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216명, 36.7%)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 (186명, 31.6%)

정치 참여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성인이 된 뒤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종 공직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다.”라는 설문에 60명(10.2%)이 ‘전적으로 동의함’, 126명(21.4%)이 ‘대체로 동의함’, 216명(36.7%)이 ‘별로 동의하지 않음’, 186명(31.6%)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분석할 때 정치적 효능감은 높게 나타난 데 반해, 학생들의 정치참여 의사는 저조한 수준 (186명, 31.6%)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9 > 정치참여 교차분석							
대상	구분	전적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계	
성별	남학생	36 (11.9%)	75 (24.8%)	102 (33.6%)	90 (29.7%)	303 (100%)	chi-sq= 7.287 유의 확률: 0.063
	여학생	24 (8.4%)	51 (17.9%)	114 (40.0%)	96 (33.7%)	285 (100%)	
학년	1학년	15 (7.7%)	36 (18.5%)	81 (41.5%)	63 (32.3%)	195 (100%)	chi-sq= 11.333 유의 확률: 0.079
	2학년	21 (10.6%)	36 (18.2%)	72 (36.4%)	69 (34.9%)	198 (100%)	
	3학년	24 (12.3%)	54 (27.7%)	63 (32.3%)	54 (27.7%)	195 (100%)	
경제 수준	상	15 (45.5%)	6 (18.2%)	6 (18.2%)	6 (18.2%)	33 (100%)	chi-sq= 70.512 유의 확률: 0.001
	중상	24 (9.8%)	54 (22.0%)	105 (42.7%)	63 (25.6%)	246 (100%)	
	중하	21 (8.3%)	45 (17.9%)	87 (34.5%)	99 (39.3%)	252 (100%)	
	하		21 (36.8%)	18 (31.6%)	18 (31.6%)	57 (100%)	
종교	기독교	12 (10.5%)	21 (18.4%)	45 (39.5%)	36 (31.6%)	114 (100%)	chi-sq= 33.876 유의 확률: 0.001
	천주교		12 (16.7%)	30 (41.7%)	30 (41.7%)	72 (100%)	
	불교	24 (15.1%)	42 (26.4%)	54 (34.0%)	39 (24.5%)	159 (100%)	
	기타	3 (33.3%)			6 (66.7%)	9 (100%)	
	무교	21 (9.0%)	51 (21.8%)	87 (37.2%)	75 (32.1%)	234 (100%)	

정치참여 의식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성별, 학년과의 교차분석 결과는 무의미함을, 경제수준, 종교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성인이 된 뒤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종 공직선거

에 직접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다.”라는 질문에 경제 수준별로는 상위계층의 36.4%만 동의하지 않았으며 중간 이하의 계층에서는 60%이상의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아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치 참여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모든 종교에 걸쳐 정치참여 의식이 낮게 나타나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⑤ 타협과 설득의식

< 표 10 > 타협과 설득의식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타협과 설득의식	①전적으로 동의함 (63명, 10.7%) ②대체로 동의함 (108명, 18.4%)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252명, 42.9%)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 (165명, 28.1%)

타협과 설득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정치지도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점을 끝까지 타협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설문에, 60명(10.2%)이 ‘전적으로 동의함’, 126명(21.4%)이 ‘대체로 동의함’, 216명(36.7%)이 ‘별로 동의하지 않음’, 186명(31.6%)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분석할 때 402명(68.3%)의 학생이 주장관철보다는 타협이나 설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11 > 타협과 설득의식 교차분석

대상 \ 구분		전적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계
성별	남학생	48 (15.8%)	69 (22.8%)	105 (34.7%)	81 (26.7%)	303 (100%)
	여학생	15 (5.3%)	39 (13.7%)	147 (51.6%)	84 (29.5%)	285 (100%)
학년	1학년	21 (10.8%)	33 (16.9%)	75 (38.5%)	66 (33.9%)	195 (100%)
	2학년	21 (10.6%)	36 (18.2%)	87 (43.9%)	54 (27.3%)	198 (100%)
	3학년	21 (10.8%)	39 (20.0%)	90 (46.2%)	45 (23.1%)	195 (100%)
경제 수준	상	6 (18.2%)	12 (36.4%)	12 (36.4%)	3 (9.1%)	33 (100%)
	중상	27 (11.0%)	36 (14.6%)	120 (48.8%)	63 (25.6%)	246 (100%)
	중하	24 (9.5%)	48 (19.1%)	108 (42.9%)	72 (28.6%)	252 (100%)
	하	6 (10.5%)	12 (21.1%)	12 (21.1%)	27 (47.4%)	57 (100%)
종교	기독교	9 (7.9%)	21 (18.4%)	48 (42.1%)	36 (31.6%)	114 (100%)
	천주교	3 (4.2%)	12 (16.7%)	36 (50.0%)	21 (29.2%)	72 (100%)
	불교	15 (9.4%)	24 (15.1%)	63 (39.6%)	57 (35.9%)	159 (100%)
	기타	3 (33.3%)	3 (33.3%)		3 (33.3%)	9 (100%)
	무교	33 (14.1%)	48 (20.5%)	105 (44.9%)	48 (20.5%)	234 (100%)

타협과 설득의식에 대한 성별, 경제수준, 종교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고, 학년의 교차분석 결과만 무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정치지도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점을 끝까지 타협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질문에 남학생 61.4%, 여학생 81.1%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타협과 설득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위계층의 45.5%만 동의하지 않았으며 중간 이하의 계층에서는 65%이상의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아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타협과 설득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모든 종교에 걸쳐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⑥ 다수결 원칙에 대한 의식

< 표 12 > 다수결 원칙에 대한 의식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다수결 원칙에 대한 의식	①전적으로 동의함 (81명, 13.8%) ②대체로 동의함 (324명, 55.1%)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153명, 26%)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30명, 5.1%)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동의를 알아보기 위해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다수가 결정을 했으면 따라야 한다.”라는 설문에, 81명(13.8%)이 ‘전적으로 동의함’, 324명(55.1%)이 ‘대체로 동의함’, 153명(26%)이 ‘별로 동의하지 않음’, 30명(5.1%)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분석할 때 405명(68.9%)의 학생이 다수결의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13 > 다수결 원칙에 대한 교차분석							
대상	구분	전적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계	
성별	남학생	48 (15.8%)	156 (51.5%)	84 (27.7%)	15 (5.0%)	303 (100%)	chi-sq= 4.146 유의확률: 0.246
	여학생	33 (11.6%)	168 (59.0%)	69 (24.2%)	15 (5.3%)	285 (100%)	
학년	1학년	42 (21.5%)	102 (52.3%)	42 (21.5%)	9 (4.6%)	195 (100%)	chi-sq= 27.898 유의확률: 0.001
	2학년	21 (10.6%)	114 (57.6%)	60 (30.3%)	3 (1.5%)	198 (100%)	
	3학년	18 (9.2%)	108 (55.4%)	51 (26.2%)	18 (9.2%)	195 (100%)	
경제 수준	상		15 (45.5%)	15 (45.5%)	3 (9.0%)	33 (100%)	chi-sq= 31.057 유의확률: 0.001
	중상	42 (17.1%)	144 (58.5%)	54 (22.0%)	6 (2.4%)	246 (100%)	
	중하	33 (13.0%)	138 (54.8%)	69 (27.4%)	12 (4.8%)	252 (100%)	
	하	6 (10.5%)	27 (43.4%)	15 (26.3%)	9 (15.8%)	57 (100%)	
종교	기독교	24 (21.1%)	60 (52.6%)	27 (23.7%)	3 (2.6%)	114 (100%)	chi-sq= 55.131 유의확률: 0.001
	천주교	15 (20.8%)	51 (70.8%)	6 (8.3%)		72 (100%)	
	불교	9 (5.7%)	90 (56.6%)	51 (32.1%)	9 (5.7%)	159 (100%)	
	기타		6 (66.7%)		3 (33.3%)	9 (100%)	
	무교	33 (14.1%)	117 (50.0%)	69 (29.5%)	15 (6.4%)	234 (100%)	

다수결의 원칙의 동의에 대한 학년, 경제수준, 종교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고, 성별 교차분석 결과만 무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다수가 결정을 했으면 따라야 한다.”라는 질문에 학년별로는 1학년 73.8%, 2학년 68.2%, 3학년 64.6%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학년이 낮아 질수록 다수결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수준별로는 상위계층의 45.5%만 동의하고 중간 이하의 계층에서는 50%이상의 학생들이 동의하여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다수결 원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모든 종교에 걸쳐 60%이상의 학생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⑦ 시위 문화

< 표 14 > 시위문화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시위 문화	①전적으로 동의함 (255명, 43.4%) ②대체로 동의함 (252명, 42.9%)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57명, 9.7%)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24명, 4.1%)

정부의 실정에 대한 저항권으로서 시위나 데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 시위나 데모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설문에, 255명(43.4%)이 ‘전적으로 동의함’, 252명(42.9%)이 ‘대체로 동의함’, 57명(9.7%)이 ‘별로 동의하지 않음’, 24명(4.1%)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분석할 때 응답 학생의 대부분(507명, 86.3%)이 시위나 데모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15 > 시위문화 교차분석

대상 \ 구분		전적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계	
성별	남학생	138 (45.5%)	111 (36.6%)	36 (11.9%)	18 (5.9%)	303 (100%)	chi-sq= 14.711 유의확률: 0.002
	여학생	117 (41.1%)	141 (49.5%)	21 (7.4%)	6 (2.1%)	285 (100%)	
학년	1학년	60 (30.8%)	96 (49.2%)	36 (18.5%)	3 (1.5%)	195 (100%)	chi-sq= 57.426 유의확률: 0.001
	2학년	90 (45.5%)	96 (48.5%)	6 (3.0%)	6 (3.0%)	198 (100%)	
	3학년	105 (53.9%)	60 (30.8%)	15 (7.7%)	15 (7.7%)	195 (100%)	
경제 수준	상	18 (54.6%)	3 (9.1%)	12 (36.4%)		33 (100%)	chi-sq= 69.049 유의확률: 0.001
	중상	90 (36.6%)	129 (52.4%)	24 (9.8%)	3 (1.2%)	246 (100%)	
	중하	114 (45.2%)	108 (42.9%)	15 (6.0%)	15 (6.0%)	252 (100%)	
	하	33 (57.9%)	12 (21.1%)	6 (10.5%)	6 (10.5%)	57 (100%)	
종교	기독교	57 (50.0%)	48 (42.1%)	6 (5.3%)	3 (2.6%)	114 (100%)	chi-sq= 48.737 유의확률: 0.001
	천주교	30 (41.7%)	39 (54.2%)	3 (4.2%)		72 (100%)	
	불교	60 (37.7%)	63 (39.6%)	30 (18.9%)	6 (3.8%)	159 (100%)	
	기타	3 (33.3%)	3 (33.3%)		3 (33.3%)	9 (100%)	
	무교	105 (44.9%)	99 (42.3%)	18 (7.7%)	12 (5.1%)	234 (100%)	

시위문화에 대한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네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 시위나 데모를 하는 것

은 정당하다.”라는 질문에 남학생 82.1%, 여학생 90.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시위문화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80.0%, 2학년 94.3%, 3학년 84.7%가 동의하여 학년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경제 수준별로는 상위 계층의 63.7%가 동의하고, 중간 이하의 계층에서는 75%이상의 학생들이 동의하여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시위문화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모든 종교에 걸쳐 65%이상의 학생들이 동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⑧ 여성의 정치참여

< 표 16 > 여성의 정치참여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여성의 정치참여	①전적으로 동의함(330명, 56.1%) ②대체로 동의함 (168명, 28.6%)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66명, 11.2%)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24명, 4.1%)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성의 각종 공직참여는 법적 장치(여성할당제 등)를 통해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설문에, 330명(56.1%)이 ‘전적으로 동의함’, 168명(28.6%)이 ‘대체로 동의함’, 66명(11.2%)이 ‘별로 동의하지 않음’, 24명(4.1%)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 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분석할 때 응답 학생의 498명(84.7%)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17 > 여성의 정치참여 교차분석							
대상 \ 구분		전적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계	
성별	남학생	102 (33.7%)	114 (37.6%)	63 (20.8%)	24 (7.9%)	303 (100%)	chi-sq= 147.670 유의 확률: 0.001
	여학생	228 (80.0%)	54 (19.0%)	3 (1.1%)		285 (100%)	
학년	1학년	102 (52.3%)	60 (30.8%)	30 (15.4%)	3 (1.5%)	195 (100%)	chi-sq= 17.238 유의 확률: 0.008
	2학년	120 (60.6%)	51 (25.8%)	21 (10.6%)	6 (3.0%)	198 (100%)	
	3학년	108 (55.4%)	57 (26.2%)	15 (7.7%)	15 (7.7%)	195 (100%)	
경제 수준	상	18 (54.6%)	12 (36.4%)	3 (9.1%)		33 (100%)	chi-sq= 41.123 유의 확률: 0.001
	중상	153 (62.2%)	66 (26.8%)	24 (9.8%)	3 (1.2%)	246 (100%)	
	중하	123 (48.8%)	84 (33.3%)	33 (13.1%)	12 (4.8%)	252 (100%)	
	하	36 (63.2%)	6 (10.5%)	6 (10.5%)	9 (15.8%)	57 (100%)	
종교	기독교	81 (71.1%)	15 (13.2%)	9 (7.9%)	9 (7.9%)	114 (100%)	chi-sq= 63.115 유의 확률: 0.001
	천주교	36 (50.0%)	24 (33.3%)	12 (16.7%)		72 (100%)	
	불교	78 (49.1%)	63 (39.6%)	18 (11.3%)		159 (100%)	
	기타	6 (66.7%)			3 (33.3%)	9 (100%)	
	무교	129 (55.1%)	66 (28.2%)	27 (11.5%)	12 (5.1%)	234 (100%)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네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여성의 각종 공직참여는 법적 장치(여성할당제

등)를 통해 확대되어야 한다.” 라는 질문에 남학생 71.3%, 여학생 99.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정치참여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83.1%, 2학년 86.4%, 3학년 81.6%가 동의하여 학년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경제 수준별로는 모든 계층의 70%이상의 학생들이 동의하였고 경제수준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모든 종교에 걸쳐 65%이상의 학생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민주주의 실현의지”의 조사에서는 여학생의 민주주의 실현의지가 높고, 학년별로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민주주의 실현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종교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주의 의식”의 조사에서는 여학생의 개인주의 의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년이 낮을 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주의 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불교를 제외한 기독교, 천주교, 무교의 경우 개인주의 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거참여와 정치 발전”의 조사에서는 남, 여학생 모두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제 수준이 높을 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치참여”의 조사에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치 참여의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종교에 걸쳐 정치참여 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고 종교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타협과 설득의식”의 조사에서는 남학생의 타협과 설득의식이 높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타협과 설득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수결 원칙”의 인식 조사에서는 학년이 낮아질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다수결 원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종교에 걸쳐 60%이상의 학생들이 다수결 원칙에 동의하였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위 문화”의 인식 조사에서는 여학생의 시위 문화 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년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시위 문화 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모든 종교에 걸쳐 시위 문화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여학생의 정치참여의식이 높았고, 학년별, 경제 수준별, 종교별 교차 분석에서도 대부분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찬성하였으며 학년별, 경제 수준별, 종교별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2) 북한관

① 북한사람들의 가치관

< 표 18 > 북한사람들의 가치관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북한사람들의 가치관	①아주 다르다 (210명, 35.7%)
	②어느 정도 다르다 (309명, 52.6%)
	③어느 정도 비슷하다 (66명, 11.2%)
	④매우 비슷하다(3명, 0.5%)

남북한 주민간의 가치관/사고방식의 이질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에, 210명(35.7%)이 ‘아주 다르다’, 309명(52.6%)이 ‘어느 정도 다르다’, 66명(11.2%)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3명(0.5%)이 ‘매우 비슷하다’라

고 응답하였다. 519명(88.3%)의 학생이 다르다고 응답하여 남북한 주민간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19 > 북한사람들의 가치관 교차분석							
구분 대상		아주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	매우 비슷하다	계	
성별	남학생	114 (37.6%)	144 (47.5%)	42 (13.9%)	3 (1.0%)	303 (100%)	chi-sq= 10.338 유의확률: 0.016
	여학생	96 (33.7%)	165 (57.9%)	24 (8.4%)		285 (100%)	
학년	1학년	87 (44.6%)	84 (43.1%)	21 (10.8%)	3 (1.5%)	195 (100%)	chi-sq= 17.854 유의확률: 0.007
	2학년	63 (31.8%)	111 (56.1%)	24 (12.1%)		198 (100%)	
	3학년	60 (30.8%)	114 (58.5%)	21 (10.8%)		195 (100%)	
경제 수준	상	12 (36.4%)	18 (54.6%)		3 (9.1%)	33 (100%)	chi-sq= 58.785 유의확률: 0.001
	중상	81 (32.9%)	138 (56.1%)	27 (11.0%)		246 (100%)	
	중하	99 (39.3%)	120 (47.6%)	33 (13.1%)		252 (100%)	
	하	18 (31.6%)	33 (57.9%)	6 (10.5%)		57 (100%)	
종교	기독교	42 (36.8%)	60 (52.6%)	12 (10.5%)		114 (100%)	chi-sq= 26.500 유의확률: 0.009
	천주교	36 (50.0%)	33 (45.8%)	3 (4.2%)		72 (100%)	
	불교	42 (26.4%)	87 (54.7%)	27 (17.0%)	3 (1.9%)	159 (100%)	
	기타	3 (33.3%)	6 (66.7%)			9 (100%)	
	무교	87 (37.2%)	123 (52.6%)	24 (10.3%)		234 (100%)	

남북한의 가치관/사고방식의 이질성에 대한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와

의 교차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네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남학생 85.1%, 여학생 91.6%가 다르다고 조사되어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87.7%, 2학년 87.9%, 3학년 89.3%가 다르다고 하여 학년별 교차분석 결과도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경제 수준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85%이상의 학생들이 다르다고 하여 경제수준별 교차분석 결과도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모든 종교에 걸쳐 80%이상의 학생들이 다르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북한사람들의 생활방식

< 표 20 > 북한사람들의 생활방식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북한사람들의 생활방식	①아주 다르다 (258명, 43.9%) ②어느 정도 다르다 (261명, 44.4%) ③어느 정도 비슷하다 (63명, 10.7%) ④매우 비슷하다(6명, 1%)

남북한 주민간의 생활방식의 이질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에, 258명(43.9%)이 ‘아주 다르다’, 261명(44.4%)이 ‘어느 정도 다르다’, 63명(10.7%)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6명(1%)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응답하였다. 519명(88.3%)의 학생이 다르다고 응답하여 남북한 주민간의 생활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21 > 북한사람들의 생활방식 교차분석							
대상 \ 구분		아주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	매우 비슷하다	계	
성별	남학생	144 (47.5%)	120 (39.6%)	33 (10.9%)	6 (2.0%)	303 (100%)	chi-sq= 10.780 유의 확률: 0.013
	여학생	114 (40.0%)	141 (49.5%)	30 (10.5%)		285 (100%)	
학년	1학년	84 (43.1%)	90 (46.2%)	15 (7.7%)	6 (3.1%)	195 (100%)	chi-sq= 20.994 유의 확률: 0.002
	2학년	84 (42.4%)	96 (48.5%)	18 (9.1%)		198 (100%)	
	3학년	90 (46.2%)	75 (38.5%)	30 (15.4%)		195 (100%)	
경제 수준	상	12 (36.4%)	12 (36.4%)	3 (9.1%)	6 (18.2%)	33 (100%)	chi-sq= 105.802 유의 확률: 0.001
	중상	102 (41.5%)	120 (48.8%)	24 (9.8%)		246 (100%)	
	중하	114 (45.2%)	108 (42.9%)	30 (11.9%)		252 (100%)	
	하	30 (52.6%)	21 (36.8%)	6 (10.5%)		57 (100%)	
종교	기독교	51 (44.7%)	60 (52.6%)	3 (2.6%)		114 (100%)	chi-sq= 30.949 유의 확률: 0.002
	천주교	33 (45.8%)	30 (41.7%)	9 (12.5%)		72 (100%)	
	불교	66 (41.5%)	69 (43.4%)	18 (11.3%)	6 (3.8%)	159 (100%)	
	기타	3 (33.3%)	6 (66.7%)			9 (100%)	
	무교	105 (44.9%)	96 (41.0%)	33 (14.1%)		234 (100%)	

남북한의 생활방식의 이질성에 대한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네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남학생 87.1%, 여학

생 89.5%가 다르다고 조사되어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 89.3%, 2학년 90.9%, 3학년 84.7%가 다르다고 하여 학년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경제 수준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70%이상의 학생들이 다르다고 하여 경제수준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모든 종교에 걸쳐 80%이상의 학생들이 다르다고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③ 북한 사람들의 언어생활

< 표 22 > 북한 사람들의 언어생활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북한사람들의 언어 생활	①아주 다르다 (144명, 24.5%) ②어느 정도 다르다 (342명, 58.2%) ③어느 정도 비슷하다 (99명, 16.8%) ④매우 비슷하다(3명, 5%)

남북한 주민간의 언어생활의 이질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언어생활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습니까?”라는 설문에, 144명(24.5%)이 ‘아주 다르다’, 342명(58.2%)이 ‘어느 정도 다르다’, 99명(16.8%)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3명(5%)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응답하였다. 486명(82.7%)의 학생이 다르다고 응답하여 남북한 주민간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23 > 북한사람들의 언어생활 교차분석							
대상 \ 구분		아주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	매우 비슷하다	계	
성별	남학생	78 (25.7%)	159 (52.5%)	63 (20.8%)		303 (100%)	chi-sq= 12.509 유의 확률: 0.006
	여학생	66 (23.2%)	183 (64.2%)	36 (12.6%)		285 (100%)	
학년	1학년	54 (27.7%)	108 (55.4%)	30 (15.4%)	3 (1.5%)	195 (100%)	chi-sq= 16.605 유의 확률: 0.011
	2학년	33 (16.7%)	129 (65.2%)	36 (18.2%)		198 (100%)	
	3학년	57 (29.2%)	105 (53.9%)	33 (16.9%)		195 (100%)	
경제 수준	상	9 (27.3%)	18 (54.6%)	3 (9.1%)	3 (9.1%)	33 (100%)	chi-sq= 53.187 유의 확률: 0.001
	중상	63 (25.6%)	138 (56.1%)	45 (18.3%)		246 (100%)	
	중하	57 (22.6%)	153 (60.7%)	42 (16.7%)		252 (100%)	
	하	15 (26.3%)	33 (57.9%)	9 (15.8%)		57 (100%)	
종교	기독교	15 (13.2%)	81 (71.1%)	18 (15.8%)		114 (100%)	chi-sq= 44.140 유의 확률: 0.001
	천주교	18 (25.0%)	51 (70.8%)	3 (4.2%)		72 (100%)	
	불교	36 (22.6%)	78 (49.1%)	42 (26.4%)	3 (1.9%)	159 (100%)	
	기타	3 (33.3%)	6 (66.7%)			9 (100%)	
	무교	72 (30.8%)	126 (53.8%)	36 (15.4%)		234 (100%)	

남북한 언어생활의 이질성에 대한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와의 교차 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네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언어생

활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남학생 78.2%, 여학생 87.4%가 다르다고 한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언어의 이질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83.1%, 2학년 81.9%, 3학년 83.1%가 다르다고 하여 학년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경제 수준별로는 모든 계층에서는 80%이상의 학생들이 다르다고 하여 교차분석결과는 별 차이가 없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모든 종교에 걸쳐 70%이상의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④ 대북 식량 지원

< 표 24 > 대북 식량지원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대북 식량 지원	①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30명, 5.1%) ②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면 지원해야 한다 (426명, 72.4%) ③어떤 이유에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99명, 16.8%) ④잘 모르겠다(33명, 5.6%)

대북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식량이나 비료 등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30명(5.1%)이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 426명(72.4%)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면 지원해야 한다’, 99명(16.8%)이 ‘어떤 이유에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 33명(5.6%)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분석 할 때, ‘조건부 지원’(426명, 72.4%)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25 > 대북 식량지원 교차분석

대상 \ 구분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지원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면 지원	어떤 이유에서든 지원 안 됨	잘 모르겠다	계	
성별	남학생	24 (7.9%)	201 (66.3%)	57 (18.8%)	21 (6.9%)	303 (100%)	chi-sq= 16.344 유의확률: 0.001
	여학생	6 (2.1%)	225 (79.0%)	42 (14.7%)	12 (4.2%)	285 (100%)	
학년	1학년	12 (6.2%)	123 (63.1%)	45 (23.1%)	15 (7.7%)	195 (100%)	chi-sq= 24.633 유의확률: 0.001
	2학년	9 (4.6%)	150 (75.8%)	36 (18.2%)	3 (1.5%)	198 (100%)	
	3학년	9 (4.6%)	153 (78.5%)	18 (9.2%)	15 (7.7%)	195 (100%)	
경제 수준	상	9 (27.3%)	12 (36.4%)	9 (27.3%)	3 (9.1%)	33 (100%)	chi-sq= 66.833 유의확률: 0.001
	중상	12 (4.9%)	195 (79.3%)	30 (12.2%)	9 (3.7%)	246 (100%)	
	중하	9 (3.6%)	186 (73.8%)	45 (17.9%)	12 (4.8%)	252 (100%)	
	하		33 (57.9%)	15 (26.3%)	9 (15.8%)	57 (100%)	
종교	기독교	6 (5.3%)	90 (79.0%)	15 (13.2%)	3 (2.6%)	114 (100%)	chi-sq= 19.515 유의확률: 0.077
	천주교	3 (4.2%)	54 (75.0%)	6 (8.3%)	9 (12.5%)	72 (100%)	
	불교	9 (5.7%)	105 (66.0%)	36 (22.6%)	9 (5.7%)	159 (100%)	
	기타		6 (66.7%)	3 (33.3%)		9 (100%)	
	무교	12 (5.1%)	171 (73.1%)	39 (16.7%)	12 (5.1%)	234 (100%)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성별, 학년, 경제수준의 교차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고, 종교의 교차분석

결과만 무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식량이나 비료 등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남학생 74.2%, 여학생 81.1%가 지원해야된다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학년별로는 1학년 69.3%, 2학년 80.4%, 3학년 83.1%가 지원해야 한다 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북 식량 지원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별로는 중하 이상의 계층에서는 60%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해야한다 하였고, 하위계층의 57.9%만 지원해야 한다고 하여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대북 식량 지원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북한사람들의 가치관”의 조사에서는 남·여 학생의 80%이상이 다르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 학년별, 경제수준별, 종교별 교차분석 결과도 80%이상이 다르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 학년별, 경제수준별, 종교별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북한 사람들의 생활방식”조사에서는 성별, 학년별, 종교별 교차분석 결과에서 80% 이상이 경제 수준별로는 70%이상의 학생이 다르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 학년별, 경제수준별, 종교별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북한 사람들의 언어생활”조사에서는 성별, 학년별, 경제 수준별 교차분석 결과에서 80% 이상이 종교별로는 70%이상의 학생이 다르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 학년별, 경제수준별, 종교별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대북 식량 지원”조사에서는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북 식량 지원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대북 식량 지원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모든 종교에 걸쳐 70%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통일관

① 통일의 이유

< 표 26 > 통일의 이유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통일의 이유	①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지므로(279명, 47.4%) ②통일이 되면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므로(132명, 22.4%) ③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더 잘살 수 있으므로(75명, 12.8%) ④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60명, 10.2%) ⑤기타(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42명, 7.1%)

통일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예, 279명(47.4%)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지므로’, 132명(22.4%)이 ‘통일이 되면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므로’, 75명(12.8%)이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더 잘살 수 있으므로’, 60명(10.2%)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2명(7.1%)이 ‘기타’라고 응답하였다.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영향력 제고’(279명, 47.4%), ‘전쟁위험 일소’(132명, 22.4%), ‘경제적 부강’(75명, 12.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표 27 > 통일의 이유 교차분석								
대상	구분	국제사회 에서 영향력이 커지므로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므 로	경제적으 로 더 잘 살수 있으므로	이산가 족문제 를 해결하 기 위해	기타	계	
성 별	남학 생	135 (44.6%)	90 (29.7%)	30 (9.9%)	27 (8.9%)	21 (6.9%)	303 (100%)	chi-sq= 20.813 유의 확률: 0.001
	여학 생	144 (50.5%)	42 (14.7%)	45 (15.8%)	33 (11.6%)	21 (7.4%)	285 (100%)	
학 년	1학 년	108 (55.4%)	24 (12.3%)	33 (16.9%)	18 (9.2%)	12 (6.2%)	195 (100%)	chi-sq= 35.336 유의 확률: 0.001
	2학 년	81 (40.9%)	48 (24.2%)	30 (15.2%)	27 (13.6%)	12 (6.1%)	198 (100%)	
	3학 년	90 (46.2%)	60 (30.8%)	12 (6.2%)	15 (7.7%)	18 (9.2%)	195 (100%)	
경 제 수 준	상	24 (72.7%)	6 (18.2%)			3 (9.1%)	33 (100%)	chi-sq= 28.228 유의 확률: 0.005
	중상	114 (46.3%)	60 (24.4%)	33 (13.4%)	21 (8.5%)	18 (7.3%)	246 (100%)	
	중하	123 (48.8%)	51 (20.2%)	33 (13.1%)	33 (13.1%)	12 (4.8%)	252 (100%)	
	하	18 (31.6%)	15 (26.3%)	9 (15.8%)	6 (10.5%)	9 (15.8%)	57 (100%)	
종 교	기 독 교	60 (52.6%)	24 (21.1%)	15 (13.2%)	9 (7.9%)	6 (5.3%)	114 (100%)	chi-sq= 47.039 유의 확률: 0.001
	천 주 교	42 (58.3%)	9 (12.5%)	9 (12.5%)	9 (12.5%)	3 (4.2%)	72 (100%)	
	불 교	78 (49.1%)	51 (32.1%)	9 (5.7%)	12 (7.6%)	9 (5.7%)	159 (100%)	
	기 타	6 (66.7%)				3 (33.3%)	9 (100%)	
	무 교	93 (39.7%)	48 (20.5%)	42 (18.0%)	30 (12.8%)	21 (9.0%)	234 (100%)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를 막론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통일의 가장 큰 이유로 꼽고있다.

② 통일 의지

< 표 28 > 통일의지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통일 의지	①통일은 민족적 과제이므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72명, 12.2%) ②통일을 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369명, 62.9%) ③통일은 남측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102명, 17.3%) ④통일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42명, 7.1%)

통일에 대한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통일에 관한 생각 중 자신과 가장 가까운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라는 설문에, 72명(12.2%)이 ‘통일은 민족적 과제이므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369명(62.9%)이 ‘통일을 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102명(17.3%)이 ‘통일은 남측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42명(7.1%)이 ‘통일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분석할 때, 369명(62.9%)의 학생이 ‘통일을 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실적으로 통일 후 발생하게 될 통일비용을 마련하는데 남한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표 29 > 통일의지 교차분석

대상		통일의지					계
		구분	통일은 민족적과제 이므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을 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한 다	통일은 남측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므 로 필요성을 느끼지못 한다	통일 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성별	남학생	57 (19.0%)	186 (62.0%)	45 (15.0%)	12 (4.0%)	300 (100%)	chi-sq= 33.288 유의확률: 0.001
	여학생	15 (5.3%)	183 (64.2%)	57 (20.0%)	30 (10.5%)	285 (100%)	
학년	1학년	18 (9.2%)	126 (64.6%)	33 (16.9%)	15 (7.7%)	192 (100%)	chi-sq= 30.447 유의확률: 0.001
	2학년	12 (6.1%)	123 (62.1%)	45 (22.7%)	18 (9.1%)	198 (100%)	
	3학년	42 (21.5%)	120 (61.5%)	24 (12.3%)	9 (4.6%)	195 (100%)	
경제수준	상	6 (18.2%)	18 (54.6%)	9 (27.3%)		33 (100%)	chi-sq= 23.399 유의확률: 0.005
	중상	36 (14.6%)	153 (62.2%)	33 (13.4%)	21 (8.5%)	243 (100%)	
	중하	21 (8.3%)	171 (67.9%)	42 (16.7%)	18 (7.1%)	252 (100%)	
	하	9 (15.8%)	27 (47.4%)	18 (31.6%)	3 (5.3%)	57 (100%)	
종교	기독교	9 (7.9%)	84 (73.7%)	18 (15.8%)	3 (2.6%)	114 (100%)	chi-sq= 42.192 유의확률: 0.001
	천주교	12 (16.7%)	39 (54.2%)	21 (29.2%)		72 (100%)	
	불교	15 (9.4%)	99 (62.3%)	21 (13.2%)	24 (15.1%)	159 (100%)	
	기타		6 (66.7%)	3 (33.3%)		9 (100%)	
	무교	36 (15.4%)	141 (60.3%)	39 (16.7%)	15 (6.4%)	231 (100%)	

통일 의지에 대한 성별, 학년, 종교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경제수준의 교차분석 결과는 무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통일에 관한 생각 중 자신과 가장 가까운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남학생 81.0%, 여학생 69.5%가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통일의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73.8%, 2학년 68.2%, 3학년 83.0%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학년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경제 수준별로는 모든 계층에서는 60%이상의 학생들이 통일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여 경제수준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모든 종교에 걸쳐 70%이상의 학생들이 통일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③ 통일의 시기

< 표 30 > 통일시기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통일의 시기	①5-9년 (93명, 15.8%)
	②10-14년 (159명, 27%)
	③15-19년 (84명, 14.3%)
	④20년 이후 (159명, 27%)
	⑤불가능할 것이다 (93명, 15.8%)

향후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앞으로 얼마 후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93명(15.8%)이 ‘5-9년’, 159명(27%)이 ‘10-14년’, 84명(14.3%)이 ‘15-19년’, 159명(27%)이 ‘20년 이후’, 93명(15.8%)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응답중 ‘10-14년’, ‘20년 이후’ 라는 응답이 159명(27%)씩으로 가장 높았으며, ‘5-9년’, ‘불

가능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93명(15.8%)씩으로, '15-19년'이라는 응답이 14.3%로 조사되었다.

< 표 31 > 통일시기 교차분석								
구분 대상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후	불가능 할 것이다	계	
성별	남학생	51 (16.8%)	90 (29.7%)	45 (14.9%)	72 (23.8%)	45 (14.9%)	303 (100%)	chi-sq= 5.039 유의확률: 0.283
	여학생	42 (14.7%)	69 (24.2%)	39 (13.7%)	87 (30.5%)	48 (16.8%)	285 (100%)	
학년	1학년	27 (13.9%)	66 (33.9%)	30 (15.4%)	45 (23.1%)	27 (13.9%)	195 (100%)	chi-sq= 43.296 유의확률: 0.001
	2학년	27 (13.6%)	42 (12.2%)	15 (7.6%)	81 (40.9%)	33 (16.7%)	198 (100%)	
	3학년	39 (20.0%)	51 (26.2%)	39 (20.0%)	33 (16.9%)	33 (16.9%)	195 (100%)	
경제 수준	상	9 (27.3%)	9 (27.3%)	6 (18.2%)	6 (18.2%)	3 (9.1%)	33 (100%)	chi-sq= 48.358 유의확률: 0.001
	중상	48 (19.5%)	75 (30.5%)	45 (18.3%)	60 (24.4%)	18 (7.3%)	246 (100%)	
	중하	33 (13.1%)	60 (23.8%)	30 (11.9%)	75 (29.8%)	54 (21.4%)	252 (100%)	
	하	3 (5.3%)	15 (26.3%)	3 (5.3%)	18 (31.6%)	18 (31.6%)	57 (100%)	
종교	기독교	27 (23.7%)	30 (26.3%)	15 (13.2%)	36 (31.6%)	6 (5.3%)	114 (100%)	chi-sq= 42.220 유의확률: 0.001
	천주교	9 (12.5%)	21 (29.2%)	6 (8.3%)	18 (25.0%)	18 (25.0%)	72 (100%)	
	불교	33 (20.8%)	45 (28.3%)	15 (9.4%)	39 (24.5%)	27 (17.0%)	159 (100%)	
	기타			3 (33.3%)	3 (33.3%)	3 (33.3%)	9 (100%)	
	무교	24 (10.3%)	63 (26.9%)	45 (19.2%)	63 (26.9%)	39 (16.7%)	234 (100%)	

위의 표를 분석하면 “앞으로 얼마 후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향후 통일의 시기를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와 교차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는 학년, 경제수준, 종교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성별은 무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학년, 경제수준, 종교별 교차분석의 결과 통일의 시기를 10년 이후로 보고 있으며,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그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통일 후의 어려움

< 표 32 > 통일후의 어려움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통일후의 어려움	①남한주민의 경제적 부담 (159명, 27%) ②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 (201명, 34.2%) ③정치적인 혼란 (105명, 17.9%) ④빈부격차의 심화 (90명, 15.3%) ⑤언어생활의 차이 (27명, 4.6%) ⑥모르겠다 (6명, 1%)

통일후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만약 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에 발생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에, 159명(27%)이 ‘남한주민의 경제적 부담’, 201명(34.2%)이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 105명(17.9%)이 ‘정치적인 혼란’, 90명(15.3%)이 ‘빈부격차의 심화’, 27명(4.6%)이 ‘언어생활의 차이’, 6명(1%)이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 ‘남한주민의 경제적 부담’, ‘빈부격차의 심화’, ‘언어생활의 차이’, ‘모르겠다’ 순으로 조사되었다.

< 표 33 > 통일후의 어려움 교차분석									
대상	구분	남한주 민의 경제적 부담	가치관 과 생활방 식의 차이	정치적 인 혼란	빈부격 차의 차이	언어생 활의 차이	모르겠 다	계	
성별	남학 생	69 (22.8%)	99 (32.7%)	48 (15.8%)	57 (18.8%)	24 (7.9%)	6 (2.2%)	303 (100%)	chi-sq= 31.802 유의 확률: 0.001
	여학 생	90 (31.6%)	102 (35.8%)	57 (20.0%)	33 (11.6%)	3 (1.1%)		285 (100%)	
학년	1학년	51 (26.2%)	75 (38.5%)	36 (18.5%)	27 (13.9%)	6 (3.1%)		195 (100%)	chi-sq= 17.768 유의 확률: 0.059
	2학년	54 (27.3%)	75 (37.9%)	24 (12.1%)	33 (16.7%)	9 (4.6%)	3 (1.5%)	198 (100%)	
	3학년	54 (27.7%)	51 (26.2%)	45 (23.1%)	30 (15.4%)	12 (6.2%)	3 (1.5%)	195 (100%)	
경제 수준	상	15 (45.5%)	3 (9.1%)	6 (18.2%)	6 (18.2%)		6 (18.2%)	33 (100%)	chi-sq= 48.358 유의 확률: 0.001
	중상	45 (18.3%)	111 (45.1%)	45 (18.3%)	42 (17.1%)	3 (1.2%)		246 (100%)	
	중하	84 (33.3%)	75 (29.8%)	39 (15.5%)	39 (15.5%)	12 (4.8%)	3 (1.2%)	252 (100%)	
	하	15 (26.3%)	12 (21.1%)	15 (26.3%)	3 (5.3%)	12 (21.1%)		57 (100%)	
종교	기독 교	36 (31.6%)	39 (34.2%)	18 (15.8%)	21 (18.4%)			114 (100%)	chi-sq= 47.680 유의 확률: 0.001
	천주 교	21 (29.2%)	24 (33.3%)	18 (25.0%)	6 (8.3%)	3 (4.2%)		72 (100%)	
	불교	45 (28.3%)	51 (32.1%)	33 (20.8%)	21 (13.2%)	9 (5.7%)		159 (100%)	
	기타		3 (33.3%)	3 (33.3%)		3 (33.3%)		9 (100%)	
	무교	57 (24.4%)	84 (35.9%)	33 (14.1%)	42 (18.0%)	12 (5.1%)	6 (2.6%)	234 (100%)	

위의 표를 분석하면 “만약 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에 발생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통일 후의 어려움에 대한 성별, 경제수준, 종교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고, 학년의 교차분석 결과는 무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별 교차분석의 결과 경제적 부담과 가치관, 생활방식의 차이를 통일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통일의 가장 큰 이유”를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를 막론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들고 있었으며 “통일의지”에 관한 조사에서는 여학생의 통일의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년, 경제수준, 종교별 모두 60%이상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학년, 경제수준, 종교별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통일의 시기에 대한 분석에서는 학년, 경제수준, 종교별 교차분석의 결과 통일의 시기를 10년 이후로 보고 있으며,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그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를 막론하고 경제적 부담과 가치관, 생활방식의 차이를 통일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4) 안보관

① 미군 철수

< 표 34 > 미군철수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미군 철수	①즉시 철수해야 한다 (150명, 25.5%) ②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282명, 48%) ③현재 규모대로 주둔시켜야 한다 (120명, 20.4%) ④현재보다 강화하여 주둔시켜야 한다(36명, 6.1%)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에, 150명(25.5%)이 ‘즉시 철수해야 한다’, 282명(48%)이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120명(20.4%)이 ‘현재 규모대로 주둔시켜야 한다’, 36명(6.1%)이 ‘현재보다 강화하여 주둔시켜야 한다’라고 응답하여 432명(73.5%)의 학생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5 > 미군철수 교차분석

대상 \ 구분		즉시철수 해야한다	단계적으 로 철수해야 한다	현재 규모대로 주둔시켜 야 한다	현재보다 강화하여 주둔시켜 야 한다	계	
성별	남학생	87 (28.7%)	126 (41.6%)	69 (22.8%)	21 (6.9%)	303 (100%)	chi-sq= 10.190 유의확률: 0.017
	여학생	63 (22.1%)	156 (54.7%)	51 (17.9%)	15 (5.3%)	285 (100%)	
학년	1학년	66 (33.9%)	78 (40.0%)	45 (23.1%)	6 (3.1%)	195 (100%)	chi-sq= 33.297 유의확률: 0.001
	2학년	27 (13.6%)	105 (53.0%)	48 (24.2%)	18 (9.1%)	198 (100%)	
	3학년	57 (29.2%)	99 (50.8%)	27 (13.9%)	12 (6.2%)	195 (100%)	
경제 수준	상	18 (54.6%)	6 (18.2%)	9 (27.3%)		33 (100%)	chi-sq= 39.295 유의확률: 0.001
	중상	60 (24.4%)	111 (45.1%)	51 (20.7%)	24 (9.8%)	246 (100%)	
	중하	51 (20.2%)	138 (54.8%)	54 (21.4%)	9 (3.6%)	252 (100%)	
	하	21 (36.8%)	27 (47.4%)	6 (10.5%)	3 (5.3%)	57 (100%)	
종교	기독교	27 (23.7%)	45 (39.5%)	30 (26.3%)	12 (10.5%)	114 (100%)	chi-sq= 31.053 유의확률: 0.002
	천주교	12 (16.7%)	42 (58.3%)	15 (20.8%)	3 (4.2%)	72 (100%)	
	불교	48 (30.2%)	84 (52.8%)	21 (13.2%)	6 (3.8%)	159 (100%)	
	기타		9 (100.0%)			9 (100%)	
	무교	63 (26.9%)	102 (43.6%)	54 (23.1%)	15 (6.4%)	234 (100%)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네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

까?”라는 질문에 남학생 70.3%, 여학생 76.8%가 철수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73.9%, 2학년 66.6%, 3학년 80.0%가 철수해야 한다고 하여 학년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경제 수준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70%이상의 학생들이 철수해야 한다고 하여 경제수준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모든 종교에 걸쳐 60%이상의 학생들이 철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미군철수와 안보

< 표 36 > 미군철수와 안보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미군철수와 안보	①큰 위협이 될 것이다 (141명, 24%) ②약간 위협이 될 것이다 (327명, 55.6%) ③별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81명, 13.8%) ④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39명, 6.6%)

주한미군 철수와 안보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가정해 볼 때, 남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에, 141명(24%)이 ‘큰 위협이 될 것이다’, 327명(55.6%)이 ‘약간 위협이 될 것이다’, 81명(13.8%)이 ‘별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39명(6.6%)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468명(79.6%)의 학생이 주한미군의 철수로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 표 37 > 미군철수와 안보 교차분석							
대상	구분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약간 위협이 될 것이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계	
성별	남학생	84 (27.7%)	156 (51.5%)	33 (10.9%)	30 (9.9%)	303 (100%)	chi-sq= 19.411 유의확률: 0.001
	여학생	57 (20.0%)	171 (60.0%)	48 (16.8%)	9 (3.2%)	285 (100%)	
학년	1학년	51 (26.2%)	99 (50.8%)	27 (13.9%)	18 (9.2%)	195 (100%)	chi-sq= 23.810 유의확률: 0.001
	2학년	48 (24.2%)	129 (65.2%)	18 (9.1%)	3 (1.5%)	198 (100%)	
	3학년	42 (21.5%)	99 (50.8%)	36 (18.5%)	18 (9.2%)	195 (100%)	
경제 수준	상	6 (18.2%)	12 (36.4%)	6 (18.2%)	9 (27.3%)	33 (100%)	chi-sq= 41.378 유의확률: 0.001
	중상	63 (25.6%)	141 (57.3%)	30 (12.2%)	12 (4.9%)	246 (100%)	
	중하	69 (27.4%)	138 (54.8%)	33 (13.1%)	12 (4.8%)	252 (100%)	
	하	3 (5.3%)	36 (63.2%)	12 (21.1%)	6 (10.5%)	57 (100%)	
종교	기독교	30 (26.3%)	63 (55.3%)	18 (15.8%)	3 (2.6%)	114 (100%)	chi-sq= 23.664 유의확률: 0.023
	천주교	24 (33.3%)	36 (50.0%)	9 (12.5%)	3 (4.2%)	72 (100%)	
	불교	27 (17.0%)	99 (62.3%)	24 (15.1%)	9 (5.7%)	159 (100%)	
	기타		6 (66.7%)	3 (33.3%)		9 (100%)	
	무교	60 (25.6%)	123 (52.6%)	27 (11.5%)	24 (10.3%)	234 (100%)	

미군철수와 안보에 대한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네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가정해 볼 때, 남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남학생 79.2%, 여학생 80.0%가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 77.0%, 2학년 89.4%, 3학년 72.3%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학년별 교차분석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경제 수준별로는 상위계층의 54.6%가 위협이 될 것이라 하였으며 중간 이하의 계층에서는 65%이상의 학생들이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하여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주한미군의 철수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모든 종교에 걸쳐 65%이상의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③국가 보안법

< 표 38 > 국가보안법 빈도분석

항목	응답(단위 : 명, %)
국가 보안법	①폐지되어야 한다 (27명, 4.6%) ②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453명, 77%) ③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3명, 5.6%) ④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75명, 12.8%)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에, 27명(4.6%)이 ‘폐지되어야 한다’, 453명(77%)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33명(5.6%)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75명(12.8%)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53명(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9 > 국가보안법 교차분석

대상 \ 구분		폐지되어야 한다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계	
성별	남학생	21 (6.9%)	216 (71.2%)	18 (5.9%)	48 (15.8%)	303 (100%)	chi-sq= 14.923 유의확률: 0.002
	여학생	6 (2.1%)	237 (83.2%)	15 (5.3%)	27 (9.5%)	285 (100%)	
학년	1학년		144 (73.7%)	12 (6.2%)	39 (20.0%)	195 (100%)	chi-sq= 55.206 유의확률: 0.001
	2학년	3 (1.5%)	159 (80.3%)	15 (7.6%)	21 (10.6%)	198 (100%)	
	3학년	24 (12.3%)	150 (77.0%)	6 (3.1%)	15 (7.7%)	195 (100%)	
경제 수준	상	6 (18.2%)	18 (54.4%)	3 (9.1%)	6 (18.2%)	33 (100%)	chi-sq= 45.814 유의확률: 0.001
	중상	9 (3.7%)	201 (81.7%)	18 (7.3%)	18 (7.3%)	246 (100%)	
	중하	6 (2.4%)	198 (78.6%)	12 (4.8%)	36 (14.3%)	252 (100%)	
	하	6 (10.5%)	36 (63.2%)		15 (26.3%)	57 (100%)	
종교	기독교	3 (2.6%)	87 (76.3%)	6 (5.3%)	18 (15.8%)	114 (100%)	chi-sq= 48.497 유의확률: 0.001
	천주교		63 (87.5%)		9 (12.5%)	72 (100%)	
	불교	6 (3.8%)	111 (69.8%)	9 (5.7%)	33 (20.8%)	159 (100%)	
	기타	3 (33.3%)	6 (66.7%)			9 (100%)	
	무교	15 (6.4%)	186 (79.5%)	18 (7.7%)	15 (6.4%)	234 (100%)	

국가보안법 처리문제에 대한 성별, 학년, 경제수준, 종교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chi-sq 검증의 결과에서 네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국가보안법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남학생 78.1%, 여학생 85.3%가 폐지·수정되어야 한다고 답하여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국가보안법 처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73.7%, 2학년 81.8%, 3학년 89.3%가 폐지·수정되어야 한다고 답하여 학년이 높을수록 국가보안법 처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수준별로는 모든 계층에서는 60%이상의 학생들이 폐지·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경제수준별 교차분석의 결과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종교와의 교차분석에서는 모든 종교에 걸쳐 70%이상의 학생들이 폐지·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하여볼 때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관한 조사에서는 성별, 학년별, 경제수준별, 종교별로 60%이상의 학생들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성별, 학년별, 경제수준별, 종교별 교차분석의 결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

“미군 철수와 안보”에 관한 조사에서는 성별, 학년별, 경제수준별, 종교별로 60%이상의 학생들이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성별, 학년별, 종교별 교차분석의 결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주한미군의 철수가 보다 더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학생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식이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수준과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부산지역 고등학생 588명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민주주의의식**에 대한 의식구조를 보면, 고등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현의지는 다소 높은 74.5%의 응답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여학생과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층에서 민주주의 실현의지가 강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주의의식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59.2%가 개인주의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학생, 고학년, 하위계층, 불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 개인주의 의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은 정치적 효능감은 다소 높은 수준(77.6%)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학년별, 종교별로는 모두 정치적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수준별로는 상위계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 의사는 낮게(31.6%) 나타나고 있으나, '내가 던진 한 표는 정치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설문에 77.6%의 학생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참여를 통한 정치발전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과 고학년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의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타협과 설득의식에 대한 동의 정도는 68.3%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년별, 종교별로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수결 원칙에 대한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동의비율은 68.9%로 나타났다. 성별과 종교별 차이는 별로 없으며, 학년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다소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은 시위문화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응답자의 86.3%가 정부의 실정에 대한 저항권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항권에 대한 동의 비율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년별 종교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견으로는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84.7%가 찬성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여학생의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년별, 경제수준별, 종교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북한관에 대한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체제간 이질성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은 각 문항에서 상당히 '이질적이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가운데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방식에는 응답자의 88.3%가 언어생활에는 82.7%가 '이질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당면할 갈등양상을 예측하게 하는 것으로 그만큼 통일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추정하게 한다. 남북한 주민간 이질성은 언어생활에 있어서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항목에 대한 성별, 학년별, 경제수준별, 종교별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조건부 지

원'(72.4%)을 선호하고 있으며, '무조건 지원'에 대한 응답비율은 (5.1%)에 그치고 있다. 성별, 종교별로는 별 차이가 없으며, 고학년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식량지원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통일관은 다음과 같다. 통일에 대해 예상되는 이익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제고'(47.4%)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다음으로, '전쟁위험 일소'(22.4%), '경제적 부강'(12.8%)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제고'는 1학년과 경제수준이 '상'일수록 더 많은 응답비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쟁위험 일소'는 남학생과 3학년 경제수준 '하'에서 많은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경제적 부강'은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의지를 보면, '시급히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견(12.2%)보다 '점진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신중론(62.9%)이 훨씬 더 많았다.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은 '10-14년'과 '20년 이후'라는 응답이 각각 27%였으며 '5-9년 이내'의 낙관적이고 단기적인 평가는 15.8%였다.

통일 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34.2%), '경제적 부담'(27%), '정치적 혼란'(17.9%)순으로 지적되었다.

끝으로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안보관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73.5%로 지배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즉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25.5%)보다는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48%)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 학년별, 경제수준별, 종교별 차이는 별로 없었다.

2. 결 론

위에서 분석한 바를 종합해 볼 때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은 민주주의실현 의지와 정치적 효능감은 높으나 정치참여 의사는 낮은 편이며, 타협과 설득의식, 다수결을 선호하는 반면, 시위문화를 정당하게 여겨 저항권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현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의 급진전이라는 상황은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통일, 대북 및 안보 정책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도 다소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통일, 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와 관련한 의식구조는 문항간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국가 안보의 문제, 경제적 부담과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치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향과 정치교육을 포함한 교육적인 노력과제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의식과 관련하여,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현의지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참여는 낮게 나타나고 있고 시위문화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들로부터 기인하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청산과 민주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해 엄정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 등 민주시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성이 분단의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통일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북한체제에 대한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각적인 남·북한 교류 활동을 펼쳐야겠다.

셋째,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한 관계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은 ‘통일을 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답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의지약화는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선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통일 논의가 민간부문으로 조속히 확대되어 통일에 대한 의지와 함께 통일 정책과 통일 교육의 신뢰와 효율성이 확보되고, 남북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통일에 대한 지지가 밑으로부터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은 안보의식 조사에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하면서도 주한 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부분적 수정을 원하고 있다. 이는 안보가 절실하지만 민족자존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안보를 위한 세계 열강들과의 외교적 협력과 민족자존의 문제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주한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대응방안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병준(1990). “제주도 국민 윤리 교사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영복(1982).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사상”, 『현대사회』, 봄호.
- 김광웅,방은령(2001). 『한국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형성요인』, 서울:집문당.
- 김규택(1969). “정부에 대한 어린이들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3집, 한국정치학회.
- 김명기·김운태(2000). 『정치학개론』,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김운태(1998). 『정치학원론』, 서울: 박영사.
- 김진나(1994). “중학생들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영 외(2003). 『정치학의 이해』, 서울: 삼우사.
- 김하룡 외(1982). 『정치학원론』, 서울: 박영사.
- 박동서,김광웅(1987). 『한국인의 민주정치의식』, 서울: 서울대 출판부.
- 박용현(1976). 『사회적 행동과 학습』, 서울: 교육출판사.
- 박용현 외(1980). 『현대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한국정신문화 연구원.
- 박종남(1997).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익(1981). “선거를 통한 韓國住民의 政治意識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완기(1985). “정치사회화와 정치문화,” 김계수 외 편, 『현대정치과정

- 론』, 서울: 법문사.
- 배한동(2001). 『한국대학생의 정치의식』, 서울: 집문당.
- 서위태(1990). “포항지역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포항연구』
- 안병만(1985). 『한국정치론』, 서울: 다산출판사.
- 안성호(2002). 『신정치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극찬(2002). 『정치학』, 서울: 법문사.
- 이봉렬(1988). “초등교사의 정치 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노 외(1980).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이종렬(1977).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철형(1996). 『최신 정치학원론』, 서울: 법지사.
- 이현주(1995).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득주 외(1999). 『정치 문화와 민주 시민의 교육』, 서울: 유풍출판사.
- 정득구(1975). 『정치의식과 투표행위』, 서울: 박영사.
- 정병구(1998). “중소도시 고등학생들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실태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세구(1978). “정치사회화 과정의 분석: 한국의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 정인홍 외(1979). 『정치학 대사전』, 서울: 박영사.
- 최지영(1994). “정치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 한완상(1992). 『한국현실과 한국사회학』, 서울: 범우사.

- Almond, G. A. and Sidney Verba. 1966. *The Civic Culture*,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 Almond, G. A. and G. Bingham Powell. 1966. *The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 Co.
- Bluhm, William T., 1974. "Ideologies and Attitudes", *Modern Political Cultur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Coleman, J. S., (ed.). 1965. *Education and Political Cultur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 Press.
- Dahl, Robert A., 1972. *Modern Political Analysis*, 2nd edition, New Delhi: Prentice-Hall of India Private Limited.
- Dawson, Richard E., 1989. *Political Socializa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Inc.
- K, Dennis 1972. *Political Culture*, London: Macmillian Press Ltd.

<부록>

설 문 지

학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문항은
무기명입니다. 또한 이 설문에 대한 응답은 연구를 위한 통계처리에만 사용
될 것입니다. 설문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대답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박정추 올림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귀하의 학년은?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3. 귀하 가정의 경제 수준은?

①상 ②중상 ③중하 ④하

4. 귀하의 종교는?

①기독교 ②천주교 ③불교 ④기타 종교 ⑤없음

※아래의 설문에 응답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만 선택하여 V표
해주십시오.

5. 어떻게 해서든 잘살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
다는 법은 없다.

①전적으로 동의함 ②대체로 동의함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

6. 국가발전에 꼭 필요하다면 개인의 자유가 다소 희생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①전적으로 동의함 ②대체로 동의함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

7. 성인이 된 뒤 각종 공직선거에서 내가 던진 한 표가 우리 나라 정치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①전적으로 동의함 ②대체로 동의함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

8. 성인이 된 뒤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종 공직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다.

①전적으로 동의함 ②대체로 동의함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

9. 정치지도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점을 끝까지 타협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①전적으로 동의함 ②대체로 동의함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

10.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다수가 결정을 했으면 따라야 한다.

①전적으로 동의함 ②대체로 동의함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

11.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 시위나 데모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

①전적으로 동의함 ②대체로 동의함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

12. 여성의 각종 공직참여는 법적 장치(여성할당제 등)를 통해 확대되어야 한다.

①전적으로 동의함 ②대체로 동의함

③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전혀 동의하지 않음

13.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①아주 다르다 ②어느 정도 다르다

③어느 정도 비슷하다 ④매우 비슷하다

14.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①아주 다르다 ②어느 정도 다르다

③어느 정도 비슷하다 ④매우 비슷하다

15.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언어생활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①아주 다르다 ②어느 정도 다르다

③어느 정도 비슷하다 ④매우 비슷하다

16.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식량이나 비료 등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

②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면 지원해야 한다

③어떤 이유에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

④잘 모르겠다

17.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영향력이 커지므로

②통일이 되면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므로

③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더 잘살 수 있으므로

④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⑤기타(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18. 통일에 관한 생각 중 자신과 가장 가까운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

- ①통일은 민족적 과제이므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 ②통일을 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③통일은 남측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 ④통일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19. 앞으로 얼마 후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습니까?

- ①5-9년 ②10-14년 ③15-19년 ④20년 이후 ⑤불가능할 것이다

20. 만약 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에 발생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습니까?

- ①남한주민의 경제적 부담 ②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 ③정치적인 혼란
- ④빈부격차의 심화 ⑤언어생활의 차이 ⑥모르겠다

21.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습니까?

- ①즉시 철수해야 한다 ②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 ③현재 규모대로 주둔시켜야 한다 ④현재보다 강화하여 주둔시켜야 한다

22.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가정해 볼 때, 남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습니까?

- ①큰 위협이 될 것이다 ②약간 위협이 될 것이다
- ③별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23. 국가보안법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습니까?

- ①폐지되어야 한다 ②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③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④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끝까지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